

삼성 KPMG

성공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어드바이저

Channel

2018 October_Vol.189

삼성KPMG의 미래
신입 회계사를 환영합니다!



Cover story

삼성KPMG의 미래,
신입 회계사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새로운 삼성KPMG 가족, 신입 회계사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시작하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용기 속에
당신의 천재성과 기적이 모두 숨어 있다.’라고
괴테는 말했습니다.

사회의 첫 시작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은 이미
그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천재성과 기적으로, 삼성KPMG와 함께
건강한 미래를 이끌어 가기를 응원합니다!

Contents

October 2018 Vol.189 삼성KPMG 뉴스레터.

건강한 성장

- 04 **Issue Focus**
2018 KPMG International Partners' Conference 개최
- 06 **Team Story**
삼성KPMG 스타트업 지원센터
- 08 **Client+**
폴무원
- 10 **Market Reader**
게임 산업을 둘러싼 10대 변화 트렌드
- 12 **Expert's Advice**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 어떻게 달라지나?
- 13 **맛있는 경제**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행복한 일터

- 15 **신입 삼정인 I**
2018 신입 회계사를 환영합니다
- 18 **신입 삼정인 II**
입사 다짐을 나만의 인생 격언으로 이야기하다!
- 20 **KPMG Story**
신입 삼정인, 'Value Talks'를 경험하다
- 22 **인재양성소**
GEP 9기 우수자 시상식 열려, 총 26명 선정
- 24 **KPMG Tour**
마라톤으로 즐긴 색다른 부산 여행기
- 26 **Talk+Play+Love**
'웨이크보드'로 동기들과 추억 만들어요!
- 28 **Culture & Etiquette**
사자의 나라, 싱가포르 문화와 에티켓
- 30 **Samjong News**
제 13회 '삼정포럼' 개최 外



발행처 삼성KPMG 기획·편집 홍보팀(02-2112-7567) 디자인 네오메디아(02-512-1666) 인쇄 드림인쇄(02-464-6161)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편번호) 06236 홈페이지 www.kpmg.com/kr

QR코드를 통해 삼성KPMG의 생생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성KPMG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KPMG International 빌 토마스 회장이 오프닝 연설을 하고 있다

‘Being The Clear Choice’를 위한 전략 제시 2018 KPMG International Partners' Conference 개최

지난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싱가포르에서 ‘2018 KPMG International Partners' Conference(IPC)’가 개최됐다. KPMG International의 주관으로 2년마다 열리는 IPC는 154개국 KPMG 파트너들이 모여, KPMG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행사이다. 삼정KPMG의 파트너들도 본 행사에 참석해, 전 세계 KPMG 파트너들과 교류하며 ‘The Clear Choice’를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

| KPMG, 2022년 가장 신뢰받는 법인으로 거듭날 것

‘2018 KPMG International Partners' Conference(이하 2018 IPC)’가 싱가포르에서 개최됐다. 전 세계 파트너 4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KPMG의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미래를 내다봤다. 삼정KPMG 김고태 회장을 비롯해 각 Function 대표들과 COO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BOLD AMBITION’, ‘DRIVING TRUST’, ‘DRIVING GROWTH’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KPMG International의 빌 토마스 회장은 오프닝 연설을 통해 시장의 기회, 기술적 변화와 혼란, 대중의 관심 등 새로운 환경을 위한 KPMG의 새로운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인 IPC의 중요

성을 강조했다. 이번 ‘2018 IPC’에서 빌 회장은 KPMG가 2022년 가장 신뢰받는 법인이 되는 것이 목표라며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Global Strategy가 준비되어 있고, 이를 리드하기 위해 신뢰에 기반한 상호 간의 강한 Relationship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목표를 이루기 위한 스스로의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빌 회장은 “KPMG 리더로서 각 구성원들이 글로벌 수준의 마음가짐을 함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라며, “IPC에 참석한 파트너들이 전 세계 KPMG의 현 리더로서 KPMG 다음 세대의 밝은 미래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1, 2. 삼성전자 IM부문 고동진 사장이 2018 IPC에 참석해 '기술, 파괴적 혁신 및 리더십'이란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3. 2018 IPC에 참석한 삼성KPMG 김교태 회장(가운데)을 비롯한 파트너의 모습

KPMG 성장 전략 프로그램, Global Strategy Program에 대한 논의

KPMG International은 2022년 가장 신뢰받는 법인이 되는 것과 재무적으로는 450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KPMG는 Global Strategy Program(GSP)을 발표했다. GSP는 전 세계 Senior Partner 100명 이상이 참여해 논의하고, 구상한 'KPMG 성장을 위한 전략 프로그램'이다. KPMG UK의 International and Market Development 대표인 스캇 파커가 GSP를 리드하고 있다. 그는 '2018 IPC' 현장에서 GSP를 소개했으며,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각국의 파트너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KPMG는 GSP 중 우선순위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Global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해 나갈 것은 물론, 각 국가에서도 Business Plan에 반영해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함께 삼성전자의 리더십과 철학을 공유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에서 추구하는 핵심 철학은 소비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의미 있는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사람들에게 받은 영감은 산업의 파괴적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끌 중요한 열쇠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리더가 된 후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바로, 직급에 관계없이 다양한 직원들과 열린 대화를 하는 것이었다. 이는 회사 내 리더십 커뮤니케이션에 엄청난 변화를 이끌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다."라며, "혁신을 이끄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저는 제 철학을 지키며 모든 고객에게 의미 있고 지속적인 혁신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5G 시대가 이끄는 세상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5G의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향후 KPMG와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삼성전자 고동진 사장 연사로 나서, 5G 변화 주도 위해 KPMG와의 협력 기대

'2018 IPC' 둘째 날에는 삼성전자 IT & Mobile(IM) 부문 고동진 사장이 연사로 참여해, '기술, 파괴적 혁신 및 리더십'이란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고동진 사장은 KPMG 행사에 참석하여 KPMG 파트너들과

고객과 사회가 믿고 선택하는 KPMG를 위해

행사 마지막 날, 빌 토마스 회장은 KPMG Story를 전 세계 구성원들이 내재화하여,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표인 'Being the Clear Choice'에 한 뜻을 모아 함께 이뤄나가자고 강조했다. 'The Clear Choice'는 복잡한 경제 환경 속에서 고객과 사회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삼성KPMG 역시 'The Clear Choice' 실현을 위한 Vision 2020 선포를 통해,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일터, 신뢰받는 조직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삼성KPMG는 이번 '2018 IPC'에서 공유된 세계 비즈니스 상황 및 변화에 대해 이해하고, 현장에서 논의된 전략과 방안을 바탕으로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KPMG 김교태 회장, 삼성전자 IM부문
고동진 사장, KPMG International 빌 토마스
회장이 함께



스타트업과
함께 하는
혁신 산업의
성장 파트너

삼성KPMG 스타트업 지원센터

삼성KPMG는 지난 2016년 4월 1일 '스타트업 지원센터(Start-up Innovation Center, SIC)'를 설립했다. 설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SIC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탄생한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이 직면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여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돕고 있다.



삼성KPMG 스타트업 지원센터의 리더와 구성원들이 모여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스타트업 육성과 투자에 대한 관심 증대, 스타트업 마인드로 접근해야

최근 다수의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스타트업 육성 및 투자 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내외 투자 관련 조직 설립도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창업 육성, 4차 산업 중심의 신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적 의지로 벤처 투자 관련 자금이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 이처럼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유망한 스타트업의 발굴이나 사업적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 가치에 대한 평가 등이 쉽지 않다. 특히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 분야에서 스타트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신규 성장동력을 찾고자 하는 기업은 중장기적인 전략 방향에 맞춰 적합한 스타트업의 발굴과 꾸준한 육성과 지원, 효과적인 협업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긴 호흡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타트업이 성장 단계에 접어들 경우 대량생산, 판로개척, 마케팅, 해외 진출 등의 성장을 위한 자금 수요가 커지고, 성공적인 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전략의 체계화와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접근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그러나 많은 스타트업이 당면하게 되는 이러한 이슈들을 스스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해 가고 있다.

현시대는 기존의 산업구조가 새로운 기술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화해 가는 변곡점에 위치해 있다. 이 시기를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고 극복하는지에 따라 개인, 기업, 국가적으로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은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수용하고 이를 통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어야 하며,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스타트업 마인드'의 접근이 필요하다.

Big4 중 유일한 스타트업 자문 그룹, 삼성KPMG 스타트업 지원센터

삼성KPMG 스타트업 지원센터(이하 삼성KPMG SIC)는 지난 2016년 설립한 이후, 3년간 국내외 스타트업 관련 기관 및 기업과 협력, 제휴 관계를 맺고 활동하고 있으며 수십여 개의 스타트업에 대해 다양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타트업 관련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액셀러레이터, 투자기관, 기업 등 스타트업 생태계의 모든 주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다수의 자문 프로젝트를 수행해왔다.

삼성KPMG SIC는 Big4 중 유일한 스타트업 전담 조직으로, 스타트업 창업 및 Exit 경험, 스타트업 사업 전략 컨설팅, VC로서의 투자 경험, 다수의 투자자문 및 M&A 자문 경험 등을 보유한 전문 인력



지난 9월 17일 판교에서 열린 'K-Startup Grand Challenge 2018 - Business Meeting NIPA x KPMG 행사': 해외 67개 스타트업과 국내 80여 개 기업/투자사가 참석, 1:1 비즈니스 미팅 프로그램을 운영해 상호 교류 및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했다.

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혁신 산업과 관련된 법인 내 산업별, 서비스 분야별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이슈별로 체계적인 대응을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총 44개국의 SIC Global Network와의 활발한 협업을 통해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진출 및 투자 유치, 해외 스타트업 발굴 등을 협력하고 있다.

'삼정KPMG SIC' 주요 서비스



For Startups

- 성장단계별 체계적인 성장 자문 서비스(Scale Up)
- 투자 유치 자문 서비스(Fundraising)
- KPMG Intensive Support Program(KISS)



For Corporate / Investor

- Startup Scan & Navigator
- One-Stop Startup Investment(M&A) Service
- KPMG Matching Day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 탄생을 돕는 파트너로!

삼정KPMG 스타트업 지원센터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디딤돌로서, 기존 기업들의 성장 동력을 찾고 만들어 가는 파트너로서의 차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또한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과 국내 기업의 해외 사업의 개척과 성장을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삼정KPMG SIC'를 소개한다면?

"삼정KPMG SIC는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에 따른 체계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IC는 사업전략과 경영, 투자유치와 M&A와 관련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유망한 산업과 기업 발굴부터 멘토링과 교육, 해외 진출 자문까지 스타트업이 가진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적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 내의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우수한 자문과 폭넓은 지원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김태훈 전무(센터장)

Tel. 02-2112-0740 / E-mail. tkim16@kr.kpmg.com

"SIC의 장점은 유연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사업모델 등에 대해 편견을 갖거나 속단하지 않고, 스타트업들의 가능성을 믿고 대응할 수 있는 젊은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그리고 기업과 투자자의 입장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고 유연한 협력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원 이사

Tel. 02-2112-7711 / E-mail. sangwonpark@kr.kpmg.com

"SIC의 장점은 전문성입니다. 구성원들의 스타트업 운영, 자문 및 투자 경험이야말로 고객에게 가장 현실적이며 전문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SIC가 속한 Deal Advisory본부의 재무 자문 역량과 삼정KPMG 법인의 글로벌 네트워크 및 산업 분야별 전문가들은 SIC의 강력한 차별화 포인트로, 이를 통해 SIC가 스타트업 육성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최정진 차장

Tel. 02-2112-7941 / E-mail. jungjinechoi@kr.kpmg.com

"SIC의 장점은 조직과 개인의 다양한 경험입니다. 조직 측면에서는 스타트업 생태계에 속한 기업과 투자자, 그리고 스타트업 등 다양한 플레이어와의 협업, 지원 및 투자 자문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삼정KPMG라는 전문가 그룹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또한, SIC 구성원들은 각자 다른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이러한 경험은 고객이 원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장원 과장

Tel. 02-2112-4385 / E-mail. jangwonoh@kr.kpmg.com

"SIC는 국내 최고의 IT 기업, 글로벌 컨설팅사, 스타트업 창업, 벤처캐피탈 근무 등의 경험을 가진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스타트업의 니즈와 투자자의 관심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정KPMG의 다년간 축적된 네트워크 및 경험으로,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투자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는 투자를 유치하는데 중요한 강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우 위원

Tel. 02-2112-4393 / E-mail. gkim4@kr.kpmg.com

Pulmuone

글로벌 로하스 선도 기업

‘바른먹거리 풀무원’

로하스(LOHAS)는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의 약자로, ‘건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생각하며 사는 의식 있는 생활양식’을 뜻한다. 30년이 넘게 바른먹거리 원칙을 지켜온 풀무원은 ‘인간과 자연을 함께 사랑하는 로하스 기업’이다.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 11년 연속, 대한민국 사회가치 최우수 기업에 2년 연속 선정된 바 있으며, 세계 No.1 두부기업으로 한국을 넘어 글로벌에서도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로하스 기업으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하다!

풀무원은 1981년 압구정동의 작은 채소가게에서 출발해, 현재는 연 매출 2조2,381억 원이 넘는 한국을 대표하는 건강생활 기업으로 성장했다. 창사 초에는 두부, 콩나물 등 전통 식품 사업을 시작했으나 현재는 신선식품과 음료를 중심으로 건강기능식품, 급식과 컨세션, 친환경식품유통, 먹는 샘물, 발효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다.

지주회사인 (주)풀무원을 중심으로 신선식품 제조, 판매 회사인 풀무원식품, 식재유통전문기업 풀무원푸드머스, 생활서비스 전문기업 풀무원푸드앤컬처,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하는 로하스 생활 기업 풀무원 건강생활과 유기농·친환경식품 유통매장 사업을 운영하는 LOHAS Fresh Market 올가홀푸드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1991년에는 국내사업을 기반으로 일찌감치 해외에 진출하여 현재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 글로벌 4대 두부 빅마켓에서 세계 No.1 두부기업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며 글로벌 로하스 대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풀무원은 창사 33주년을 기념해, 2017년에 회사 브랜드 슬로건을 ‘나와 지구를 위한 바른먹거리와 건강생활’로 정하고 글로벌 로하스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와 각오를 다졌다.

주력사업인 식품영역에서 나아가 다이어트식과 반려동물 먹거리, 미세먼지 제거 렌탈, 로하스키친 등 지구환경까지 고려한 로하스 생활 사업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특히 올해 풀무원은 전문경영인체제로 대전환한 변화의 시기를 맞아 지난 2005년 이후 13년 만에 리뉴얼한 CI와 새롭게 마련한 브랜드체계, 로하스전략을 바탕으로 전사가 ‘One Pulmuone’으로 하나되어 세계 속의 글로벌 로하스 기업으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풀무원연수원 '로하스아카데미' 전경



풀무원 음성물류센터

위라벨 지키는 행복한 조직문화

풀무원은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하고 행복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시 퇴근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PC-OFF 시스템을 도입했고, 매주 수요일, 금요일을 '자기계발데이', '가족사랑데이'로 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자녀가 있는 직원들을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함은 물론 개인 사정으로 재택근무가 필요한 직원들에겐 재택근무제도를 도입하는 등 유연근무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서울 수서동 본사에 직장 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조직원들이 육아 부담과 자녀 보육에 대한 걱정 없이 회사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했다.

로하스 정신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다!

풀무원은 로하스 정신을 담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다. 풀무원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은 바른먹거리 교육이다. 국내 기업에서 처음으로 2010년 시작한 풀무원의 어린이 바른먹거리 교육은 어린이들에게 바른식 습관을 길러주는 대표적인 조기 식습관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 첫째 교육인원이 360명에 불과했지만, 2016년부터 매년 2만 명 이상을 교육한 결과, 8년만인 올해 누적인원 10만명을 교육하는 성과를 거뒀다. 풀무원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 시니어까지 대상을 확대한 바른먹거리 교육을 앞으로 범국민적 식생활 교육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풀무원은 지구 환경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풀무원은 모든

사업장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기 위해 제품을 개발하고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온실가스, 물, 동물복지 등 지속가능성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두부, 콩나물 등 4개 대표 제품에 대해 2016년부터 탄소절감 및 물 사용 감축 과제를 도출하고 원료, 포장, 제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 걸쳐 제품의 탄소배출량과 물 사용량을 파악하고 감소목표를 정해 실천하고 있다. 풀무원 국산콩 두부제품은 환경부의 '물발자국' 인증을 받았다. 이와 같은 성과로 풀무원은 2017년 글로벌 환경경영 인증기관인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한국위원회'로부터 '기후변화대응'과 '물 경영'에서 각각 국내 식품 기업 중 유일하게 특별상을 받았다.

풀무원은 대표적인 메세나 사업으로 서울 유일의 김치박물관인 '뮤지엄김치간'을 30년 넘게 운영해 오고 있다. 2015년 한류 명소인 인사동으로 이전해 새롭게 재개관한 '뮤지엄김치간'은 한국의 대표식품인 김치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김장문화를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교육하는 민간외교 역할을 하고 있다.

풀무원의 로하스 미션을 바탕으로 한 기업 활동은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 12년 연속 선정되었고, '대한민국 사회가치 최우수 기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 또한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환경경영(Environment), 사회책임경영(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평가하는 ESG 평가에서 2017년 통합 A+등급을 받은 데 이어, 올해 처음 열린 '2018 지배구조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국내 종합식품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지배구조 우수기업상'을 수상했다.



풀무원 김치박물관 '뮤지엄김치간', 외국인 김치담그기 체험



풀무원 바른먹거리 교육

게임 산업을 둘러싼 10대 변화 트렌드

| 게임 산업에 확대되는 중국의 영향력과 확산되는 신기술의 활용

게임 산업은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뉴미디어 기술, 풍부한 게임 소재를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국내 전체 콘텐츠 산업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게임 산업은 모바일 게임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2019년 국내 게임 시장은 12.5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중국은 거대한 수요 시장과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부상했으며, 텐센트와 같은 중국 기업은 국내외 게임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거나 M&A를 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13~2017년 글로벌 게임 산업의 거래액 기준 상위 10대 M&A 거래 중 3건은 중국 기업에 의해 인수된 것으로 나타나 차이나 머니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게임 산업에서의 M&A는 신규 게임 IP(지식재산권)를 확보하고 게임 라인업을 확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하지만, 확대되는 중국의 영향력으로 인한 자본 종속, 인재 및 기술력 유출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과 규제, 가중되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 놓인 게임 기업들은 미래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AI(인공지능),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등 신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게임의 제작·개발 단계에 스스로 학습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AI가 도입되었을 때, 노동집약적인 상당 부분을 자동화하며 게임의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게임을 운

게임 산업을 둘러싼 10대 변화 트렌드

- | | |
|---|--|
| ① 법·제도의 변화
게임 산업 정책, 규제와 진흥을 오갈 것으로 전망 | ⑥ 기술 활용의 변화Ⅰ
게임 업계의 AI 연구 및 활용 본격화 |
| ② 산업 구조의 변화
PC-모바일-콘솔 경계가 사라지는 게임 시장 | ⑦ 기술 활용의 변화Ⅱ
VR 게임을 중심으로 신시장 개화 |
| ③ 산업 생태계의 변화
e스포츠, 1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급성장 | ⑧ 해외 시장의 변화
중국, 게임 산업을 지배하는 강자로 등극 |
| ④ 경영 전략의 변화
게임 업계는 IP 확보 및 활용에 주목 | ⑨ 해외 진출 전략의 변화
국내 게임사의 해외 진출 가속화 및 전략 다변화 |
| ⑤ M&A의 변화
M&A를 통한 게임사의 외형적 확장 | ⑩ 성공 요인의 변화
게임의 본원적 가치인 '오락성'과 '창의성'에 집중 |

한국의 경제 및 생활 수준의 향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으로 게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게임 산업은 정책적 요인과 더불어 산업의 구조, 기업의 전략, 기술 및 수요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다. 삼성KPMG 경제연구원은 <Issue Monitor 89호>를 통해 게임 산업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게임 산업을 둘러싼 10대 변화 트렌드를 도출했다. 게임 산업의 다양한 동학(Dynamics)적인 요소를 살펴봄으로써 게임 산업과 우리나라 게임 기업이 나아가야 할 전략적 방향을 모색해본다.

영·서비스할 때에도 시는 이용자의 수준 및 플레이 패턴에 따라 맞춤형으로 난이도를 조정해 게임의 재미를 극대화할 수도 있다.

| 게임을 4차 산업혁명의 테스트베드로 삼아 혁신 성장을 이뤄야

PC-모바일-콘솔 플랫폼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게임 산업의 가치사슬 내 기업들의 사업 범위 또한 흐려지고 있는 부분도 최근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또한 게임을 플레이 하는 즐거움에서 보고 공유하는 즐거움으로 트렌드가 이동하면서 부상한 e스포츠에는 게임사 외에도 미디어사, 스포츠사까지 진입해 산업의 판을 키우고 있다. 게임 기업들은 이런 산업 간, 기술 간 융합이 가속화되는 시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사업 활로를 찾아야 한다. 다양한 기기에서 동일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거나 새로운 플랫폼으로 게임을 확장하는 등 변화하는 게임 산업의 지형도에 맞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게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원료로도 볼 수 있는 방대한 유저 데이터가 쌓여있는 산업이다.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은 가상의 공간에서 다양한 신기술을 테스트해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신기술이 적용된 게임은 성숙기에 접어든 게임 시장이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으므로 게임 기업들은 게임을 4차 산업혁명의 테스트베드로 삼아 혁신 성장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 게임의 본원적 가치인 ‘오락성’과 ‘창의성’에 집중해야

게임의 제작 비용이 높아지고 기술 및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게임 기업들은 한정된 자원을 활용해 최고의 성과를 낼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IP를 활용해 신사업에 진출하기도 하고, 새로운 플랫폼 혹은 장르에 발을 들여놓기도 하는 등 경영 혁신을 이어나가고 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 놓인 게임 기업들은 이럴 때일수록, 게임의 본원적 가치, 즉 게임이 줄 수 있는 재미와 경험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최근 게임 산업의 트렌드가 온라인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이동하고 게임 기업들이 대형화·브랜드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진 게임사인 펄어비스의 ‘검은사막’과 블루홀의 ‘배틀그라운드’는 성공 신화를 썼다. 이들 기업의 사례처럼 게임 기획 단계부터 전 세계에서 통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오락성 있는 게임을 만드는 것이 지속적인 성장의 핵심이 될 것이다.



CONTACT US

삼성KPMG 게임산업팀 리더
박성배 전무

Tel. 02-2112-0304

E-mail. sungbaepark@kr.kpmg.com

삼성KPMG 경제연구원

김기범 선임연구원

Tel. 02-2112-7430

E-mail. kkim28@kr.kpmg.com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 어떻게 달라지나?

최근 지배구조 개선 관련
개정법들로 인한 변화로,
기업들은 법률의 제·개정
동향을 짚어보고 미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삼정KPMG는 지배구조개선
TF를 10년이 넘게
운영해오며,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삼정KPMG의
지배구조개선 TF 리더를
통해 앞으로의 변화와
그 방안을 모색해본다.



삼정KPMG 지배구조개선 TF 리더
한상일 전무

Q. 최근 기업지배구조 관련하여 개정된 법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최근 기업지배구조 중 경영권 및 소유권과 관련된 법률개정안이 많이 공표됐습니다.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법률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세법, 상법, 증권거래법 등에서 다양한 개정 내용이 있으며, 공정거래법은 최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의 요구를 반영해 38년 만에 전면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법률 개정안을 짚어봅니다.

▶ 공정거래법

-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보유 계열사 지분 의결권 중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사 금지
- 신규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 사익편취규제대상(일감 몰아주기)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율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 및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도 규제에 포함

▶ 세법

- 분할, 분할합병, 합병 시 취득세 면제 비율 50%로 하향 조정(기존 85% 면제)
- 지주회사 설립/전환 시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일몰기한 3년 (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Q. 법 개정은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A. 우선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기업들은 보다 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확립에 힘쓸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금지(일감 몰아주기 금지) 관련하여 특수관계자 간 거래 시 해당 거래의 효율성, 보안성, 즉시성에 대한 입증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거래 기준 설립, 내부거래위원회 설립 등이 예상됩니다. 또한 규정 준수를 위하여 매각, 분할, 합병 및 분할 합병 등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더불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 지주회사 설립/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조항의 일몰기한이 2021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기업들의 지주회사 설립/전환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최근 법률 개정 사항이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공익법인 지분율 규제로 인한 지배력 변동이 있는지, 지주회사 설립/전환에 따른 세법상 과세 혜택 여부 등에 대한 상세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기존 지배구조의 개편이 요구될 경우 법률 준수를 하면서 개편 과정의 기간 및 비용 등에서 실행이 가능한 방안이 준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맛있는 경제>는 우리가 모르고 지나칠 법한 시사·경제 상식을 소개한다.
이번 호에 소개되는 시사 용어는 무엇인지 함께 배워보자.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Last Mile Delivery)

택배가 목적지에 배송되기 전 마지막 단계를 이르는 말이다. 배송에 있어 단순한 속도보다는 안전과 편의성, 품질 등 서비스 측면에 주목하면서 배송 최종단계의 서비스가 유통업계의 미래전략으로 떠올랐다. 국내에선 배달음식 애플리케이션이나 소셜커머스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는 IT의 발전과도 맥을 같이 한다. 주문내역과 생산·재고 관리 등에서 빅데이터를 구축, 활용하는 한편 자율주행이나 드론 등 4차산업 신기술 또한 배송방식으로 채택된다. 이외에도 편의점, 무인택배함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택배를 수령하게 하는 것 등이 모두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서비스에 포함된다.

출처: 연합인포맥스

알파세대 (Generation Alpha)

2011~2015년에 태어나 인공지능(AI), 로봇 등 기술적 진보에 익숙한 세대를 뜻한다. 이들은 AI 스피커와 대화하면서 원하는 동요를 듣거나 동화를 읽어주는 서비스를 받으며 자란다. 그러나 이 세대는 사람과 소통하는 대신 기계와의 일방적 소통에 익숙해 정서나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편, 알파세대의 부모인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로, 청소년 때부터 인터넷을 사용해 모바일, SNS 등 정보기술(IT)에 능통하다. 또한 밀레니얼 세대는 자녀를 위해 지출을 아끼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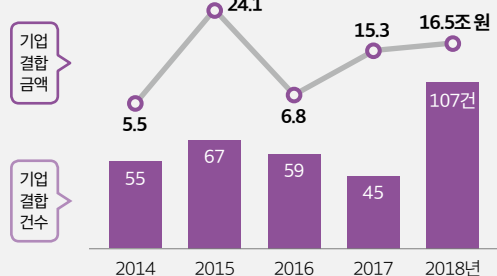
출처: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상반기 대기업 M&A 활발, 사업재편·지배구조 개편 목적

올해 상반기 국내 기업이 사업재편 등을 위한 인수합병(M&A)을 활발히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집단의 경우 소유·지배구조 개편, 구조조정 등의 일환으로 계열사 간 인수합병(M&A)이 활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월 22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기업결합 동향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는 336건, 금액은 175조4000억 원이었다.

대기업집단 기업결합 추이

연도별 상반기 기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행복한 일터

신입 삼정인 I

신입 삼정인 II

KPMG Story

인재양성소

KPMG Tour

Talk+Play+Love

Culture & Etiquette

Samjong News



우리도 이제는 삼정인!

2018 신입 회계사를 환영합니다

삼정KPMG의 미래를 책임질 2018 신입 회계사들이 진정한 삼정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입문, 직무 교육을 모두 마쳤다.
삼정KPMG와 함께 건강한 성장을 꿈꾸는 신입 회계사들의 교육 현장 스토리를 공개한다.



‘회계사 사관학교’라 불리는 삼정KPMG는 올해도 Big4 중 가장 많은 신입 회계사를 채용했다. 새롭게 삼정KPMG 가족이 된 총 370명의 신입 회계사들은 본격적인 업무에 앞서, 진정한 삼정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입문, 직무 교육에 참여했다.

지난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양평 현대 블룸비스타에서 삼정KPMG의 비전과 전략, KPMG Story,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등을 비롯해 전문가로서의 소명 의식 제고를 위한 입문 교육이 진행됐다. 입문 교육 현장은 전 세계 19만 7천 명의 KPMG 구성원을 하나로 묶어주는 행동 양식인 KPMG Story의 7 Values를 표현한 일러스트 장식으로 꾸며져, 신입 회계사들이 자연스럽게 7 Values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가장 먼저, 신입 회계사들은 한국 회계 변천 및 공인 회계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본주의 파수꾼’으로서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윤리의식 함양 교육을 받았으며, 품질관리 관리 규정과 독립성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전문가로서의 각자의 목표를 다짐하는 시간도 가졌다.





1



2



1. 연수 마지막 날, 신입 삼정인들이 표현한 'Vision 2020: The Clear Choice' 2. 신입 삼정인들이 반별로 나뉘어 입문 교육을 듣고 있다 3. 신입 회계사 만한 당시 김교태 회장이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갖고 나아갈 것'을 당부했다 4. 연수 곳곳에 장식된 KPMG Story 일러스트 5. 연수에 집중하는 신입 삼정인들

또한, 삼정인으로서 알아야 할 삼정KPMG 'Vision 2020: The Clear Choice'와 핵심가치 등을 이해하는 교육도 마련됐다. 신입 회계사들은 KPMG Story와 Purpose, 7 Values를 내재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단순한 개념 설명이 아닌, New Partner들이 직접 세션에 참여해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안에서 신입 회계사들이 KPMG Story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강현웅 회계사(IM4)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프로그램으로 New Partner들이 들려준 Story 세션이라고 말했다. “선배 회계사이자, 파트너인 상무님께서 본인이 직접 수행했던 부정 적발 관련 감사 업무를 설명해주셨어요. 아직 업무를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저도 선배님처럼 멋지게 해내야 할 일이라 생각이 들었고, 이제 정말 회계사가 되었다고 깨닫게 되었어요. 실무적인 이야기를 현장감 있게 전해주시니 더욱 몰입이 되었고요. 저도 이런 사례를 만드는 감사인이 되고 싶다는 열망을 갖게 되었어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동기들과 팀을 이뤄 야외 곳곳에 설치된 7 Values에 대한 퀴즈의 답을 찾는 활동으로, 솔선수범, 협업, 존중, 통찰력, 소통, 공헌, 정직성실이라는 Value를 체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7 Values 활동이 가장 인상 깊었다는 이예슬 회계사(Domestic Tax2)는 “팀을 이룬 동기들과 함께 야외 곳곳에 설치된 포스트를 찾아 다니며 7 Values에 대한 퀴즈를 풀어나



4



5



3

갔어요. 몸소 움직이며, 또 동기들과 소통하며 7 Values를 익힐 수 있어서 더욱 좋았어요.”라며 “솔.협.존.통.소.공.정 이렇게 앞글자를 기억해 KPMG의 Values를 기억하며 신뢰받는 전문가로 거듭나고 싶어요.”라는 포부도 밝혔다.

입문 교육을 마친 마지막 날에는 신입 회계사를 환영하는 축하 만찬이 진행됐다.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이번 만찬 현장은 신입 회계사의 시작을 위한 힘찬 응원과 환영 메시지가 가득했다. 각 본부의 파트너들과 선배들도 함께 했다.

신입 회계사들은 입사 이후, 3년간 Technical Knowledge, Professionalism, Global Mind를 기르기 위한 Global Elite Program에 참여하게 된다. 3년의 교육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무리한 인재들에게는 해외 연수의 기회도 제공한다. 만찬 현장에서는 GEP 선배 회계사들이 직접 해외 연수 후기를 들려주고, 9기로 선정된 우수자들의 시상식을 진행함으로써, 신입 회계사들에게 선배 회계사들의 모습을 통해 앞으로의 목표와 포부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입문 교육을 마친 이후, 신입 회계사들은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Function별 직무 교육에 임했다. 선배 회계사들을 통해 기본 업무 지식과 현업에 필요한 실무 지식을 습득하며 전문가가 지녀야 할 자질을 갖추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2주간의 입문, 직무 교육을 마친 신입 회계사들은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를 선도하는 전문가로서의 시작을 앞두고 있다. 이들의 시작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삼정KPMG는 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 마련과 지원에 더욱 힘써 나갈 계획이다. 행복한 일터 삼정KPMG에서 건강한 성장을 이뤄갈 2018 신입 회계사 파이팅!



6



7



8



9



10

6. 신입 삼정인들이 각자의 스토리를 담아 KPMG Story를 만들어 가고 있다 7. KPMG Story 장식을 들고 환하게 웃음 짓는 신입 삼정인 8. 각자의 Life & 강점을 소개해보는 시간 9. 7Values Activity에 참여하고 있는 신입 삼정인들 10.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된 'Vision 2020: The Clear Choice'

신입 삼정인, 입사다짐을 **나만의 인생 격언**으로 이야기하다!

2018 삼정KPMG 신입 회계사를 만나, 앞으로의 각오와 포부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본인만의 인생 격언과 좌우명으로 남다른 각오를 다진 신입 회계사를 만나보자.

“**믿는 대로 될
것이라는 마음으로!**”



김관희 Analyst
(Deal Advisory1)

“**나 자신을 믿고
당당하게 행동하자**”



임이랑 Associate
(IM3)

“**범사에 감사하라!
긍정적인 마인드론**”



윤청욱 Associate
(Global Tax)

저는 미국의 헨리 포드가 한 말을 항상 마음에 새겨왔어요.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믿는 대로 될 것이다.” 이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주어진 일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임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대학 입시, 공인회계사 시험 등과 같은 어려운 목표를 ‘과연 내가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 때마다 이 말을 생각하며, ‘할 수 있다’라고 되뇌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 삼정KPMG에 입사할 수 있었어요. 회계사로서 분명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 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때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성공적으로 일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 꾸준히 들어왔던 말이 “나 자신을 믿고 당당하게 행동하자”예요. 저는 이 말을 제 좌우명으로 삼아 어떤 상황에도 스스로를 믿는 마음가짐을 가져왔어요. 제가 스스로를 믿고 당당하게 행동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도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스스로를 믿기 위해서는 그만큼 충분한 밑바탕이 있어야 해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선배님들에게 많이 배워가며, 제 능력의 밑바탕을 단단히 쌓아 올려 나가려 해요. 신뢰를 부여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삼정KPMG의 일원이 된 만큼 어떤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역시”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신뢰받는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저는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격언을 제 인생의 등불로 삼고 있어요.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에 따라 기쁨 속에서 할 수도 있고, 괴로운 마음 가운데 고통 속에서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삼정KPMG에 입사해, 주위 사람들로부터 많은 축하를 받으며 행복함과 기분 좋은 설렘으로 업무를 하고 있지만 힘든 시기는 언제나 찾아오기 마련이죠. 하지만 힘든 시기가 찾아와도 작은 것이라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가짐만 있다면 어떠한 시련이라도 감사함 속에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저의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무기 삼아 삼정KPMG에서 승승장구해나가고 싶어요!

신입 삼정인, 여러분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사회 첫 시작을 삼정KPMG와 함께하는 신입 삼정인을 위해, <Channel>에서는 선배 삼정인들이 응원과 조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인생 선배로서, 어떤 응원과 조언을 전해왔는지 함께 살펴보자.



남술범 S.Senior (IM4)

입사를 진심으로 축하 드려요.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좋은 팀워크를 발휘했으면 좋겠네요. 약 4년간의 법인생활을 하면서 좋을 때 안 좋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 때마다 팀워크가 잘 맞으면 좋은 일은 보다 빠르게 마무리 되어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안 좋은 일은 생각보다 수월하게 진행되더라고요. 모두가 좋은 팀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랄게요. 저도 좋은 팀원을 만나고 싶네요.



박경수 Analyst (Deal Advisory4)

후배님들 반가워요. Welcome to KPMG Video에서 여러분의 힘차고 당찬 모습을 보았어요. 그 자신감 쪽 이어갈 수 있도록 늘 응원해요. 저도 아직은 배워야 할 게 많은 초년생이지만,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 드리자면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항을 질문할 때,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이 수행한 절차와 더 물어 무엇을 모르는지 명확하게 질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동현 고문

신입 삼정인 여러분, 글로벌 최고의 지식 그룹 삼정KPMG에서 최고의 지성인으로 성장하세요. 고객을 위해 일하기에 앞서 일의 결과를 최고로 만들기 위해 일하고, 일을 통해 개인의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세요. 전문성, 관계 형성 등을 통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브랜드를 만들어 가세요.



신진호 Senior (IM4)

삼정KPMG에 입사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 드려요. 처음에 업무를 배울 때에는, 모두가 많은 실수를 해요. 선배 분들에게 질문 및 보고하기 전에 자신이 작성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다면 어이없는 실수나 잘못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귀찮더라도 꼭 습관을 들이면 인정받는 신입 회계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김충원 Director (DT & FS Tax)

삼정KPMG 가족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 드려요! 신뢰받은 조직 삼정KPMG의 일원으로서 불우 이웃 돕기에 앞장서며, 행복한 일터에서 동기들과 좋은 추억을 만드세요. 또 전문가로서, 자랑스러운 삼정인으로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길 바랄게요.



Living the 7 Values! 신입 삼정인, 'Value Talks'를 경험하다

KPMG Story의 7 Values는 전 세계 19만 7,000명의 KPMG 구성원을 하나로 묶어주는 행동 양식이다. 이번 호에서는 2018 신입 회계사들이 입문 교육에서 참여한 7 Values 내재화 게임인 'Value Talks' 프로그램을 살펴보려 한다. 또한, 신입 회계사들은 7 Values 중에서 어떤 Value가 가장 공감되었는지 들어본다.

'Value Talks'는 법인의 Purpose 우수 스토리를 7 Values와 연계하는 연습을 통해 우리의 업무가 핵심가치인 '7 Values'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경험하고, 학습하는 게임이다. 신입 회계사들은 다양한 법인의 성공 사례를 통하여 Purpose 스토리와 7 Values를 연계하는 연습을 했다. 같은 Purpose 스토리라도 학습자마다 다른 7 Values로 설명하는 모습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경험할 수 있었다. 또한, 삼정KPMG의 신입 회계사로서 핵심 가치인 7 Values에 대한 공감과 실천이 왜 중요한지 충분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Value Talks를 통해서 7 Values를 잘 숙지할 수 있었으며 Value를 체화할 수 있었다."

"Value Talks를 통해 7 Values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삼정KPMG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게임을 통해 7 Values를 이해하고 익숙하게 하는 것이 참신하고 매우 효과적이었다."



1. Value Talks를 진행하고 있는 2018 신입 회계사

2. Purpose 스토리와 7 Values를 연계하여 설득 논리를 펼치고 의사결정 하는 모습

신입 회계사들이 꼽은 Value!

7 Values 중 가장 중요한 Value는 무엇인가요?



‘협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조직에 속해서 고객에게 신뢰받는 업무를 제공하는 전문가로서, 팀원들과 활동하면서 함께 일해야 하기에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김주빈 Associate (B&F2)

‘존중’이 가장 중요해요. 삼성KPMG와 고객사를 존중하는 태도가 뒷받침되어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무의 품질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정현민 Analyst (Deal Advisory2)

저는 삼성KPMG 7 Values 중에서 ‘공헌’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공헌은 개인과 조직, 공동체에 대해서 어떠한 성과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공헌이라는 가치가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이주영 Associate (B&F3)



저는 7 Values 중 ‘존중’이라는 가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법인 내에서 또, 외부 고객사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밑바탕 되어야 나머지 6가지 Values가 제대로 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유영석 Associate (ICE1)

‘소통’이 가장 중요한 Value라고 생각해요. 신입 회계사로서 선배들에게 좋은 조언을 얻고 배우며, 나아가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통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죠.

정주경 Associate (IM1)

저는 ‘소통’과 ‘통찰력’을 꼽고 싶어요. 업무를 하는데 있어 전문가로서 꼭 필요한 덕목이 ‘통찰력’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통찰력’을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소통’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종광 Associate (Domestic Tax2)

우수자 전원 내년에 영국으로 해외연수 떠나!

GEP 9기 우수자 시상식 열려, 총 26명 선정



3년간 Global Elite Program(GEP)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무리한 GEP 우수자를 위한 시상식이 신입 회계사 만찬 현장에서 열렸다. 이번에는 지난해 15명에서 26명으로 인원을 확대 선정해 더 많은 인원들이 해외연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럼 지금부터 영광의 얼굴들을 만나보자.



지난 9월 14일, 2018 신입 회계사 축하 만찬이 열린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GEP 9기 우수자 시상식'이 개최됐다. 삼정KPMG는 Junior로서 갖추어야 할 Technical Knowledge, Professionalism, Global Mind를 육성시키는 GEP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GEP 9기는 2015년 입사한 신입 회계사를 대상으로 한공회 연수, 사내 직무과정 및 업무성과를 종합 평가하여 총 26명을 GEP 9기 우수자로 최종 선발했다. 우수자로 선정된 26명은 삼정KPMG 김교태 회장의 시상으로 표창을 수여 받았으며, 이들은 2019년 5월에 영국으로 2주간 해외연수를 떠날 예정이다.

한편, 삼정KPMG는 'Vision 2020: The Clear Choice' 달성을 위해 '우수인재 확보와 육성'을 No.1 전략으로 선정해, 많은 인재들이 삼정KPMG에서 건강한 성장을 이루고,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GEP 9기 우수자

노승현(B&F1) 양정원(B&F1) 김철환(B&F2) 조용국(B&F2) 김주명(CM1) 김진목(CM1) 이종하(CM1) 손세화(ICE1) 박지선(IGH) 서상석(IGH) 한동훈(IM1) 황인찬(IM1) 이충기(IM2) 주재현(IM3) 김세훈(IM4) 황상현(IM4) 박진일(Domestic Tax1) 김대훈(Domestic Tax2) 김지선(Domestic Tax2) 백정인(Global Tax) 우종민(DT&FS Tax) 고순영(Deal Advisory1) 윤여준(Deal Advisory4) 송상백(Deal Advisory5) 박예지(Deal Advisory6) 양서연(ITC)



GEP 9기 우수자 미니 인터뷰

**“과분한 상을 주신 것에
큰 감사를 느껴요!”**

주재현 S.Senior (IM3)



GEP 우수자로 선정됐을 때, 처음 느꼈던 감정은 도움 주신 동료, 선후배 회계사들에 대한 감사와 부끄러움이었어요. 돌이켜봐도 동료, 선후배 회계사들보다 뛰어난 것도, 더 노력한 것도 없는 저에게 이런 과분한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법인 생활을 돌이켜보면 부족함을 체험한 3년이었어요. 맡은 업무들은 모두 생소하고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저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었죠. 이렇게 느낀 부족함이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이어져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부족한 만큼 성장하고 있음에 보람을 느껴요.

앞으로도 입사 때 가졌던 초심을 잃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 또 동료 회계사분들께 도움이 되는 회계사가 되고 싶어요.



**“신입 시절부터 꿈꿔온
GEP 우수자에 선정돼 기뻐요!”**

백정인 S.Senior (Global Tax)



먼저, 제가 GEP 9기 우수자에 선정됐다는 사실이 정말 기뻐요. 신입사원 연수에서 처음 GEP를 알게 되었을 때부터, 우수자에 선정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터라, 그 기쁨이 더 큰 것 같아요. 이번 수상을 계기로 3년 전 첫 입사 때를 되돌아봤어요. 입사 당시 Busy Season이라 모든 분들이 정신없이 바쁘셨고,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하지만, 주변을 돌아보니 훌륭한 선배님들이 많이 계셨고, 업무 스타일 등 선배님들을 통해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 힘든 과정들도 즐겁게 느껴지고 어느새 성장해가고 있는 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10월부터 S.Senior가 되니 어느덧 팀에서 중간 직급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훌륭한 선배님들의 모습을 본받으며 성장해가고 싶고, 또 반대로 제 모습을 후배들이 롤모델 삼을 수 있는 멋진 선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어요.

**“GEP 수상으로 3년 전을
회상하며 Refresh 했어요!”**

윤여준 S.Analyst (Deal Advisory4)



GEP 우수자에 선정된 기분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회상’이란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GEP는 앞날만을 바라보며 한 치 앞에 놓여진 업무들을 수행하기 바빴던 저 자신에게, 잠시나마 지난 3년간의 법인생활을 돌이켜 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함께한 사람들, 스쳐 지나간 인연들, 수행한 업무들, 부족했던 행동 등 KPMG에서의 지난 시간을 떠올리며 다시금 앞으로 갈 수 있게 저 자신을 Refresh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언제나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며 서로 힘이 되어주는 동기들이 있었기에 우수자에 선정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인터뷰를 통해나마 고맙다고 전하고 싶어요. 지난 3년 대부분의 시간을 Staff로서 KPMG에서 많은 경험을 했는데요, 아마도 조금은 실수를 해도, 모르는 것이 있어도 눈감아 주고, 알려주는 선배와 동료들이 있었기에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어요. 또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하고, 보다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맡은 바 업무를 끝맺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관광지 부산이지만, 고민구 Associate는 부산을 마라톤으로 색다르게 즐기고 돌아왔단다. 지난 봄 절친한 사람들과 함께 부산 광안리 바다를 달리고, 맛있는 먹거리로 에너지를 보충했다는 그의 부산 여행기를 지금부터 소개한다.



IM4 고민구 Associate 마라톤으로 즐긴 색다른 부산 여행기

1박 2일 부산 여행코스

부산역(초량 밀면)▶ 광안리 해수욕장▶ 용호동 조방낙지▶ 남포동국제시장(거인통닭)/부전시장(고래사어묵)▶ BEXCO
.....▶ 아디다스 마이런 부산(광안리 해수욕장)▶ 온천동(송원 양곱창센터)

입사 후 첫 여행지는 바다가 있는 부산!

2017년 신입 회계사로 입사해 처음 경험한 Busy Season을 무사히 잘 마치고 나만의 힐링을 위해 여행을 준비했다. 몇 개월 동안 회의실에서 지내느라 답답했던 마음을 뽕~ 뿜어줄 수 있는 바다로 가기로 계획한 것. 동해 바다는 자주 갔지만, 부산은 초등학교 이후로 기본적으로 없어서 이번에는 부산 바다로 향했다. 때 마침 친한 형이 부산으로 특별한 경험을 해보자고 제안을 했는데, 바로 마라톤이다. 덕분에 아주 짧지만 강렬한 1박 2일의 여행을 다녀왔다. 물론 1박 2일 부산여행이라 부산의 명소들을 모두 즐기진 못했다. 하지만, 짧고 굵게 바다가 주는 청량감을 느끼고, 행복한 먹방으로 알차게 여행하고 돌아왔다.

부산 여행 Best 3

①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즐기는 러닝 타임!

부산을 대표하는 광안리 해수욕장을 이번에는 마라톤으로 즐겼다. 여행 중 아디다스 마이런 부산에 참가한 것이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며, 달리기 시작해 광활한 광안대교를 건너 광안리 해수욕장을 마지막으로 마라톤을 완주했다. 완주 메달을 목에 걸고 바라본 광안리는 너무나 아름다웠다. 특히, 해수욕장에서 진행된 특별 공연과 디제잉 파티가 힘든 러닝을 잊게 해주고, 피로를 풀어줬다. 매년 봄에 마이런 마라톤 대회가 열리니, 삼정KPMG 가족들도 서울 도심을 벗어나 탁 트인 해안을 따라 달리는 부산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보길 추천한다.



마라톤을 완주한 후 점프!



자랑스러운 마라톤 완주 메달

② 맛 거리 가득! '국제시장과 부전시장'

마라톤 대회 하루 전날, 우리는 에너지 보충을 위해 부산의 재래시장에 방문했다. 백종원 3대 천왕에 나온 '거인통닭'과 부산어묵의 최고봉 '고래사어묵'을 먹기 위해 3명씩 팀을 나눠서, 한 팀은 남포동 국제시장을, 다른 한 팀은 부전시장을 다녀왔다. 사실 부산의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서울의 시장과 모습이 특별하게 다른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부산 사람들의 정감 있는 사투리와 정신없이 오가는 다양한 사람들과 음식 등을 구경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더욱이 방송에 나왔던 치킨을 기다리면서, 군것질을 하는 것 역시 큰 재미다. 비록 통닭의 고소한 향기에 취해 숙소로 향하는 길에 미리 집어 먹어 정작 숙소에서는 먹을 게 많지 않았다는 게 흠이지만 말이다. 하하.

③ 야구 선수들이 즐긴다는 '온천동 양곱창 센터'

마라톤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니 점심 시간이었다.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온천장역으로 양곱창을 먹으러 갔다. 야구 선수들이 부산으로 원정경기 왔을 때 자주 들리는 곳이란다. 소의 첫 번째 위장인 양으로 요리한 양곱창은 고소하고, 쫄깃한 식감이 일품이었다. 버섯과 감자를 올려 갯잎에 싸서 먹는 양곱창은 그야말로 '허르가짐'을 느끼기에 충분한 요리였다.

부산에 왔으니 낙곱새, 한번 먹어야죠!

부산에서 유명한 음식 중 하나가 바로 낙곱새다. 나는 당연히 바닷가에 왔으니 해산물을 먹을 생각에 광안리를 찾았는데, 용호동 조방낙지가 유명하다고 하여 급 메뉴를 바꿨다. 매콤한 양념과 곱창 기름이 낙지와 새우에 어우러져 단백하고, 서울에서 맛본 낙곱새와는 다른 신선함이 가득했다. 여기에 대선 소주를 곁들여 볶음밥까지 먹으면 세상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

부산 여행 꿀 TIP

1. 부산 여행 정보를 인터넷 검색보다는 부산이 고향인 친구에게 먼저 물어볼 것. 요즘에는 인터넷 검색으로 모르는 정보가 없지만, 주변에 유사한 맛집들이 너무나 많고 광고성 있는 블로그를 온전히 믿을 수는 없다. 때문에 100% 보증이 가능한 부산이 고향인 친구들에게 맛집, 명소 등을 물으면 부산을 현지인처럼 즐길 수 있다.

2. 먹고, 마시기만 하는 지루한 여행에 특별함을 더해 줄 BEXCO를 방문하자. 각종 전시회와 박람회가 열리니, 부산을 방문한다면 BEXCO에서 열리는 행사 정보를 사전에 알아보고 가는 것이 좋다.



낙지와 곱창, 새우가 어우러진 부산 낙곱새



춘천에서 즐긴 짜릿한 '웨이크보드'

'웨이크보드'로 동기들과 추억 만드어요!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는 동기들과 행복한 추억을 쌓고 돌아온 Deal Advisory1본부의 이석재 Analyst. 여름 휴가를 동기들과 즐길 수 있어서 행복했다는 그의 웨이크보드 체험기를 함께 들어보자.

| 동기들과 함께한 휴가 Go!

어느덧 삼정인 1년 차에 접어든 이석재입니다. 저는 Deal Advisory1본부에서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함께 일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무엇보다 함께 입사한 본부 동기들은 법인 생활에 큰 힘이 되어주는 존재예요. 본부 동기들과 더 좋은 추억을 쌓기 위해 'Talk+Play+Love'를 신청하게 됐어요. 우선, 넓은 어깨만큼이나 넓은 마음을 가지고 동기들에게 항상 도움과 조언을 아끼지 않고 주는 박광훈 연구위원, 항상 성실한 모습으로 모든 일에 열심히 하는 안민태 연구위원, 그리고 인원 제한으로 비록 같이 신청하지는 못했지만, 법인 생활 하는 데 큰 힘이 되어주는 Deal Advisory1본부 많은 동기들도 함께 했어요. 우리들은 점심때마다 함께 모여 식사하고, 가끔 저녁에도 함께 식사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던 중 여름 휴가를 이용해 함께 새로운 경험에 도전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나누게 되었고, 수상 레저인 웨이크보드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 웨이크보드 타기, 멋지게 전원 성공!

우리는 토요일 오전, 춘천 가는 열차에 몸을 실었어요. 회사에서 정장을 입고 만나다, 캐주얼 복장으로 회사가 아닌 새로운 곳에 만나니 동기들이 색다르게 느껴졌어요. 춘천역 근처에 수상레저를 즐기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웨이크보드 외에도 여러 종류의 수상레저와 풀장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우리들은 웨이크보드를 타기 전, 지상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았어요. 여러 번 훈련을 통해 물 위에 뜰





수 있을 정도라 느껴지면 입수해서 웨이크보드 탈 준비를 해요. 처음에 모터보트에 연결된 붓을 잡고 보트가 달리기 시작할 때, 물 위에 서는 것을 연습해요. 일단 서는 것도 초보자들은 힘들다고 해요.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전원 모두 멋지게 일어나 웨이크보드 타는 것에 성공했어요. 다들 성공해 웨이크보드를 즐길 수 있어서 더 기뻐요.

웨이크보드도 재미있었지만 같이 이용할 수 있었던 수상 레저 스포츠도 기억에 많이 남아요. 여러 명이 탈 수 있는 큰 튜브에 올라타는 팽팡을 즐길 때는 더 짜릿한 스릴을 느끼기 위해, 모터보트를 최대한 빠르게 운전해달라고 했더니 정말 매달려 있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속도를 내주셔서 한 명은 그만 손을 놓쳐 강에 풍덩 떨어지고 말았어요. 동기의 고통스러운 보고 있자니 많이 안타까웠지만, 또 그 나름대로 큰 재미가 되어 함께 웃었던 기억이 나요. 사실, 튜브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다해 매달려 있을 때는 '도대체 이걸 왜 타는 걸까?'라고 했지만 체험을 마친 후에는 그간 느껴보지 못한 짜릿함에 다들 재미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하.

힘들면 먼저 다가와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사람들, 감사해요!

회사가 아닌 외부에서, 동기들과 새로운 체험을 해 보는 게 쉬운 기회는 아닌데요, 이번 'Talk+Play+Love' 덕분에 좋은 사람들과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제 주변에서도 동기들과 좋은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해 많이들 부러워하더라고요. 하하. 함께한 동기들과 더욱 친해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지요.

법인 생활을 하면서 제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것은 동기들이에요. 만약, 지금의 시기들을 혼자 겪게 되었다면, 많이 외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동기들이 함께해준 덕분에 법인 생활을 하면서 힘들어도 밝게 웃을 수 있었고, 의지할 수도 있었어요. 제가 힘들어 보이면 먼저 걱정해주는 것도 고맙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같이 나서서 도와주는 것도 고마워요. 항상 든든하고 마음 편하게 해주는 동기들에게 모두 너무나 소중하고 또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오랫동안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춘천 중도레저

아름다운 춘천의 보물 중도에서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업체. 웨이크보드, 플라이피시, 땅콩보트, 바나나보트 등을 체험할 수 있다.

■ 주소: 강원도 춘천시 중도동 612-9번지
■ 문의: 010-5374-4397



사자의 나라, 싱가포르 문화와 에티켓

싱가포르의 이름은 수마트라 섬의 한 왕자가 사냥을 하다 사자처럼 생긴 동물이 섬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싱가포르(사자) 푸라(도시)라 불리며 유래됐다. 이에 '사자의 도시'라는 별명이 생겼고, 싱가포르에서는 어렵지 않게 머리는 사자, 몸은 물고기인 머라이언 동상을 볼 수 있다. '사자의 도시'라 불리는 싱가포르만의 문화와 에티켓은 무엇일까? 싱가포르 Korea Desk의 이규홍 이사를 통해 배워보자.

세계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선박항로 말라카해협의 도시 국가

한 나라의 문화를 이야기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지리적 위치와 역사입니다. 싱가포르는 말레이반도 최남단에 위치해 있으며, 서울 보다 약간 큰 크기의 도시 국가입니다. 도시 국가라는 말은 도시 하나가 곧 나라라는 뜻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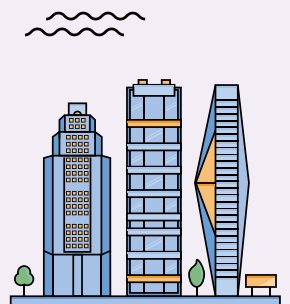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의 말라카해협의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시아와 호주, 구주와 미주 간 수출입 화물의 집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환적화물 물동량의 20%를 처리하고 있으며, 컨테이너 화물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국적 석유업체와 탱크저장업체들이 입지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액체 화물처리 항만입니다. 이러한 물류산업의 발달과 다국적 기업의 유리한 입지적 조건으로 인해 금융산업도 매우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19세기 영국동인도 회사의 토마스 스탬포드 래플즈 경에 의해 무역항으로 개발되었고 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으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지금의 싱가포르라는 도시 국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양한 인종이 어우러진 나라, 각 문화에 맞는 에티켓이 필요해!

싱가포르만의 지리적 특징과 역사가 다양한 인종이 한데 섞일 수 있게 했고, 혼합된 문화가 공존하는 지금의 싱가포르를 탄생시켰습니다. 언어적으로는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말레이어 그리고 타밀어가 공용어이며, 헌법으로 각 인종 간의 평등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싱가포르에서는 각 인종에 맞는 문화적 에티켓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계의 경우 악수를 하는 서구적인 문화가 일반적이며, 말레이계의 경우 여성이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를 제외

이것만은 꼭! 싱가포르 Etiquette Plus+

1 사전 약속 없이 방문하는 것은 실례!
업무상 상대방을 방문해야 할 경우, 미리 방문 사유, 일정 등을 조율하고 확인을 받은 후 방문해야 한다. 특히 물류, 외자유치,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는 기업 혹은 인사들이 많기 때문에 약속 없이 불쑥 방문하는 것은 상당한 실례이며, 미팅 자체가 불가능 할 가능성이 높다.



하고는 이성과 악수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도계의 경우 이성끼리는 악수보다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합니다. 또한, 식사 방법도 각 민족의 문화에 맞출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중국 음식은 젓가락을 사용해서 먹어야 하고, 말레이시아와 인도 음식은 오른손으로 집어 먹어야 합니다. 태국 음식과 인도네시아 음식은 큰 숟가락과 포크를 사용합니다.

싱가포르의 태생적 다양함은 모든 민족과 인종, 종교를 포용하는 것이 싱가포르 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최대의 가치로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모스크, 불교사원, 성당, 교회가 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차이나타운, 리틀인디아, 아랍스트리트가 고유의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고,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기념일들이 국가 공휴일이 되는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싱가포르만의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깨끗한 도시 환경을 위해 지켜야 할 규범들

지금의 싱가포르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것은 다양한 민족, 문화의 융합과 더불어 깨끗한 도시 환경일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연방으로부터 독립 이후 60년대 후반부터 클린 앤 그린 싱가포르 환경운동을 전개했고, 70~80년대는 가든시티 정책을, 90년대에는 싱가포르 녹색정책을 시행하면서 꾸준히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함과 동시에 공원과 도심의 조화를 표방한 많은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현재는 전체 토지 중 70%가 녹지이며, 보타닉 가든 등은 이러한 정책의 결과물들입니다.

싱가포르의 깨끗한 도시 환경을 생각하면, 싱가포르에서 가장 필요한 에티켓은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는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거나 혹은 껌을 씹으



1.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호커센터인 라오파사 2. Korea Desk 파트너, 동료들과 함께 마리나베이의 전경을 배경으로 찰칵! 3. 고객과 함께 차임스에서, 차임스는 과거 가톨릭 수도원이었다 4. Chinese New Year's Day의 대형 관우 조형물과 마리나베이샌즈

면 벌금을 내야하고, 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에도 벌금을 냅니다. 단지 우리들은 벌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한 나라의 규범들을 존중하는 생각으로 약속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CONTACT US

싱가포르 KOREA DESK 이규홍 DIRECTOR

Tel. +6562133129 E-mail. kylelee@kpmg.com.sg

Global Etiquette

2 사생활 존중을 위한 저녁 약속은 지양!

개인 사생활을 중요시하는 문화로, 저녁식사 약속은 피하는 것이 좋다. 처음 만나는 상대일 경우 식사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식사하는 어느 정도 안면을 익힌 상태에서 제안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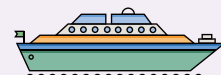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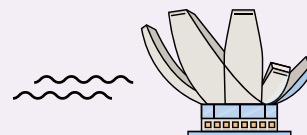
3 공무원에게 건네는 선물은 NO!

싱가포르는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어, 공무원들은 선물을 받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선물을 주고받는 관행이 보편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선물을 주더라도 과다한 것보다는 아주 간단한 기념품 등이 바람직하다.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싱가포르 Korea Desk

싱가포르 Korea Desk는 싱가포르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 고객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Audit과 Tax를 비롯하여 Advisory(회사설립, 장부설립, 경영자문 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KPMG 싱가포르 3,000여 명의 구성원과 원활한 연계를 위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13회 '삼정포럼' 개최, 삼성SDS 정유성 경영고문 강연 나서



지난 9월 5일 삼정KPMG 본사 세종&울곡로에서 '제13회 삼정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삼성SDS 정유성 경영고문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리더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150여 명의 임직원들이 참석해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역량에 대해 고민했다. 정유성 고문은 마음을 이끄는 리더십에는 ▲진정성 ▲실천 ▲소통 ▲실력 ▲공정 ▲부하육성 등 6가지 요소가 충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리더는 긍정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조직을 이끌어야 하며,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수적천석(水滴穿石)의 덕목을 쌓을 때 조직에 변화와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삼정포럼은 삼정KPMG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회 각 분야 다양한 명사의 강연을 진행해 그들만의 차별화된 인사이트를 전하는 포럼이다.

'나를 바꾸는 시간' 개최, 미래학자 정지훈 교수가 블록체인을 주제로 강연해



삼정KPMG는 지난 9월 4일 '나를 바꾸는 시간(나바시)'에 미래학자 정지훈 교수를 초청해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꾸는 방식'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블록체인의 등장 배경과 의의 등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에 대해 심도 깊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정지훈 교수는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중앙집중화가 불가능해지고 시공간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기술을 가진 개개인이 정부나 중앙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서 자신만의 의사결정을 확보하고 자유를 얻게 됐으며 블록체인이 이러한 인터넷 발전의 화룡점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나바시'는 Junior 직급을 위한 사내 강연으로 오는 11월 28일에는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인공 지능과 뇌공학의 시대' 주제로 설명할 예정이다.



사랑나눔

해비타트와 함께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



삼정KPMG는 9월 7일 해비타트와 함께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서울 시내 저소득계층 2세대를 선정하여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봉사에 참여한 14명의 임직원들은 벽지 제거, 단열 작업, 천장 도배, 환경 페인트 도장, 장판 교체, 천장 보수 및 벽면 도배 작업, 내부 정리 등을 작업했다. 한편 삼정KPMG는 주거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해비타트와 2013년 3월 재능나눔 협약식을 맺고 매년 소외계층 지원에 동참하고 있다.

삼성KPMG, FY2018 승진자 교육 실시



삼성KPMG가 FY2018 Manager, S.Manager, Director 승진자들을 대상으로 1박 2일간의 승진자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9월 18~19일 곤지암리조트에서는 Audit 및 Tax의 New Manager를 대상으로 승진자 교육이 개최됐으며, 20~21일에는 Deal Advisory, CS, Central의 New Manager를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New Manager들은 개인의 강점을 기반으로 리더로서의 가치는 무엇인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9월 6~7일 엘리시안 강촌에서는 'FY18 New S.Manager' 승진자 교육이 진행됐다. S.Manager 승진자들은 'Leading Self - Leading People - Leading Client', 3가지 역량에 따라 리더로서 필요한 가치와 역량을 어떻게 쌓아 나가야 할지 이야기를 나누고 계획을 수립했다. 10월 4~5일 양평 현대 블루비스타에서는 New Director를 대상으로 하는 FY18 승진자 교육이 실시됐다. New Director들은 다양한 주제의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리더의 행동방안 및 비즈니스 전략 아이디어 도출에 나섰으며, 법인의 성장을 이끌어 나갈 리더의 모습과 Function별 성장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청소년 꿈을 키워주는 '꿈을 Dream Project'



지난 9월 14일 삼성KPMG는 중암중학교 1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2018년 두 번째 '꿈을 Dream Project'를 실시했다. '꿈을 Dream Project'는 삼성KPMG 임직원이 서울 소재 중학교에서 '꿈&진로' 및 '경제 교육'에 대해 강연을 진행하는 봉사활동이다. 삼성KPMG는 2016년 2월 강남교육지원청과의 재능기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MOU 체결을 시작으로 진행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총 3개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The KPMG Story

The KPMG Story는 KPMG가 왜 존재하고(Purpose) 어떤 가치 속에 일하는지(Value), 무엇을 지향하고(Vision) 이를 위해 어떻게 나아가며(Strategic) 그 과정 속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Promise)를 명확히 보여주는, 일상 행동과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일관된 지침이다.

This is KPMG and
this is our story

This is why we're here

Inspiring Confidence
Empowering Change
신뢰를 부여하고
세상의 변화를 주도한다

This is our Purpose

This is what we believe in

- Lead by example 솔선수범
- Work together 협업
- Respect the individual 존중
- Seek the facts and provide insight 통찰력
- Communicate openly and honestly 소통
- Improve communities 공헌
- Act with integrity 정직성실

These are our Values

This is what we want to be

- The Clear Choice:
- Our people are extraordinary
 - Our clients see a difference in us
 - The public trusts us

This is our Vision

This is how we'll get there

We will:

- Drive a relentless focus on quality and excellent service
- Take a long-term, sustainable view
- Act as a multi-disciplinary firm, collaborating seamlessly
- Invest together in our chosen global growth priorities
- Continuously improve quality, consistency and efficiency
- Maintain a passionate focus on our clients
- Deploy globally our highly talented people
- Bring insights and innovative ideas
- Build public trust

This is our Strategy

This is how we want the world to see us

With passion and purpose, we work shoulder-to-shoulder with you, integrating innovative approaches and deep expertise to deliver real results.

This is our Promise

삼성 KPMG

독자 여러분의 의견은 Channel을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Channel을 읽은 후의 느낌과 다양한 생각을 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시는 분 또는 Channel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kr-fmchannel@kr.kpmg.com Tel : 02-2112-7567

© 2018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